

12대 총여학생회를 바라보며 나온 이야기들, 시바의 입장에서 정리하였습니다.

1. 여성행동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11. 여성행동 정책 기조에 대한 간략한 정리

여성행동의 정책 기조는 크게 여성주의적인 자치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치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학생회 질서가 오히려 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현재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는 출발하였다.

어느 누구도 나의 권리를 대표할 수 없다!

여성의 문제는 대리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을 대표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

이는 '5천 여학우', '2만 연세'라는 단일한 대중의 개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일반적이고 단일한 대중을 설정하는 것은 그동안 학생운동세력이 특정 모순을 중심모순으로 설정하고, 2만 연세의 대리자로 자임하면서 스스로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였다. 선거에 승리하였다고 해서 학생회는 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거나 대리자로서 상위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개인의 권리와 의사는 대변될 수 없다. 선거 공간은 나의 의사를 1년동안 대신 말해줄 대리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적 자치질서로 구성되는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는 기구가 아닌 질서로 존재해야 한다!

한번의 선거를 통해 1년동안 '기구'로 고정되어 버리는 학생회는 여성주의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대중의 실체는 없는데 선거에 당선되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5천 여학우/2만 연세인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학우 위에 군림하는 학생회는 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 연대 내 여학생들은 모두 같은 정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당장 공대와 문대의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조건에 놓여있는 여성이 자신의 정치를 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 우리의 문제/요구를 소통하고 조율하는 곳이 바로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이다.

선거에서 행사하는 표는 대표자를 뽑는 표가 아니다.

정치에 대한 동의의 표현일 뿐이다.

현재 학생회 구조는 자치를 담보할 수 없고, 선거라는 공간 역시 자치적이지 못하다.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라 이미지나 말발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1년동안 당선된 자들의 모든 입장과 발언과 사업을 정당화시켜주는 기제가 현재 선거판이다. 그러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학생회라면, 선거판은 초안으로서 작성된 정책/공약에 대해서 설득하고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자리이다. 선거판은 우리의 정치를 선전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공간이며 과정이다.

12. 평가

그러나, 자치와 대표는 대립되는가?

작년, 우리는 대리되거나 대표될 수 없는 여성의 문제/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선거는 대표를 뽑는 공간 자체이다. 여전히 학생회는 학교당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자. 자치질서로서의 총여학생회와 대표체로서의 총여학생회는 과연 대립되는가?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표될 수 없는 여성의 문제/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체로서의 총여학생회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대표체로서의 학생회에 대해 비판했던 맥락은 현재 학생회가 선거에 당선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5천 여학우/2만 연세인의 대표자라는 권력을 행사하며 학우들 머리위로 군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현재 학교당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오직 학생회이다. 학우들의 대표로서 학생회는 학교당국/사회와 학우들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학우들의 권리와 입장을 발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학우들의 자치실현을 위한 학생회로서의 역할이다. 자치적인 흐름들을 억압하는 학생회 질서, 학내 질서를 바꾸어나가면서 여성주의적인 자치 흐름들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 또한, 학생회의 역할인 것이다.

여성행동이 학생회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서 실제 우리의 고민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여성자치단체들의 이익을 총여학생회를 통해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5천 여학우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일한 일반학우의 실체도, 대중의 실체도 없다. 그러므로 학생회는 5천 여학우/2만 연세인의 단일한 입장/권리를 대변한다고 자신할 수도, 자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통로를 만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로 발언하고 직접행동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학생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2. 우리가 바라는 총여학생회

99년 현재 연대 안에는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여성자치모임들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연대 여성운동의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주의에 대해 선전하고 행동하고 동의의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성주의의 기반에 서 있는 총여학생회를 필요로 하는가?

그러나 여전히 연대 내에서 여성주의적 자치를 실현하기에, 여성주의를 실현하기에 안정된 기반 마련은 불투명하다. 96년 이래 자치모임들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였으며, 안정된 활동의 주기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성운동의 안정적인 기반으로서의

총여학생회이다. 학내, 학외에 존재하고 있는 반여성적인 질서/담론에 저항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이다. 여성들이 과방에서도 거리낌없이 행동할 수 있고, 성차별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고, 성폭력의 공포를 당연히 받아들이 필요 없는 대학이 되기 위해, 우리는 여성주의적인 기반에 서있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것이다. 학내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자치모임들이 안정된 기반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성주의적인 기반에 서있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것이다. 자치질서를 억압하는 학생사회와 학생회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주의적인 기반에 서있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적 질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사회를 대상으로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는 연대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의 안정적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여성주의적인 자치의 흐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완전한 6000(?) 여학우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 즉, 총여학생회만이 중심이라고 자임하고 학우들 위로 군림할 수 없다.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라 함은 총여학생회는 다양한 사회적 기반 위에 놓인 연대 전체를 조망하며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자치적이며 자발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기반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 소통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그동안 연대 여성운동의 자원과 정보를 축적하고 배분해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학교 당국/사회와 연대 여성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학교 당국/사회에서 발언하고 활동해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자치적인 흐름들을 생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총여학생회는 연대 안에서 안정적인 여성운동의 흐름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책 간담회를 준비한다

발신 : 12대 총여 선거를 준비하는 여성주의자들 & 정책팀

수신 : 선본과 델타에게 & 관심 있는 이들에게

*아래 내용은 자유롭게 열거한 것임

I. 열린 총여학생회 : 연세 곳곳으로 침투하는 총여학생회

· 총여학생회 회칙 제정 : 투명한 총여

총여 예산을 1학기에 한번정도는 공개하도록 이를 회칙으로 정한다.

자치단체와의 회의 테이블을 회칙으로 정한다.

연속성 있는 총여의 활동이 되도록.

총여학생회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여성 자치단체와의 사이버 인트라넷을 구축

· 소리함 - 이동 총여학생회

항상 나온 얘기라 좀 지루한 면도 있지만

총여가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것은 어떤 유행이 아니라 총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 「연세여성」

총여의 기관지로서 연세여성이 갖는 특징을 인정

‘화장실 신문’의 형태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역량이 될지...힘든 작업임)

II. 성폭력 - 성교육(?), 성폭력 학칙제정, 상담소

*총여가 반성폭력 흐름의 구심점이 된다.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성교육

신입생 새터 때 총여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자치단체가 있는 곳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없는 곳은 총여가 어느 정도 위치를 담당한다.

· 성폭력 상담소의 ‘제대로’된 운영.

그곳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상담소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

(- 어디까지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상담소의 지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y대 얘기. 전도가 남았는가?)

· 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학칙 제정과정에 개입한다.

여학생처의 자의적인 학칙 제정에 대한 반대.

자치규약은 학칙이 제정되더라도 계속되어야 한다. 학칙과 자치규약은 그 성격이 다르다.

- 성폭력의 일반화 학교를 벗어난 성폭력 : 기지촌 여성문제(이정숙씨)

III. 여성들의 공간

- 학내 여학생 처지 관련(1,2학기) - 공간

여학생 휴게실 마련, 환경 개선. 흡연실 마련, 거울, 선반, 가로등……

'비교체험 극과 극' - 연대 휴게실과 이대 휴게실을 비교한다.

- 여휴 : 자유롭지 못한 여성의 해방구

왜 다른 이들의 시선으로부터 불편해야 하는가?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성학 도서들을 배치

소통을 위한 날적어도 좋을 듯

- 체육관 체육시설 여학생 전용 사용 시간

IV. 여성노동 관련

- 여학생들의 진로 - 우리들의 미래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찾을 길이 없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 다양한 진로의 모색

결혼, 고시 뿐인가?

- 군가산제 문제

V. 여성주의 문화 : 말하기, 즐기

여성이 편하게 말하고, 즐길 수 있도록.

-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여성 지원

여성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여학우들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 - 인터넷, 통신, 홈페이지 제작 관련

사이버 공간에의 참여를 돕는다

학기초에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좌를 개설한다.

- 10만원 여성 영화제

작품 영화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상영하고 시상하는 영화제 개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지원해준다.

여성 관련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 영화 혹은 다큐물

영상물로 조발표를 하는 수업이나 영화 동아리 혹은 관심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 학내 여성 언론에 대한 지원 · 후원사업

게릴라 언론 - 비정규직, 내용이나 형식에의 자유로움 - 을 만들자.

게릴라 언론? 여성학 수업을 굳이 조발표의 형식으로만 해야하는가?

이를테면 수업 시간에 신문을 만들어보라는 식도 가능할텐데..

· 여성들의 놀이 공간 창출

힙합 댄스, 풍물패 강좌.

문화적 인적 자원 창출

VI. 여성학 수업

· 여성학 수업 · 세미나, 조모임에 대한 지원

자치단체나 조모임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나 세미나 커리에 대한 조언

여성학 모니터링 팀을 만들자.

강사 선정 과정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참여.

여성학 수업의 정체성을 찾도록. 강사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수업별 차별화

여성학 수업 강사와 학생 소통의 장을 마련

여성학 수업이 레벨별로 개설되도록

· 여성학 리포트 콘테스트와 리포트 모음집 발행

여성학 관련 수업에서 제출되는 리포트들이 단지 하나의 수업에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단지 리포트들을 모은 것이 아닌 여성학 주제에 대한 내용 이해를 돕는 형식으로.

-(여성학 수업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의 도움을 받는다. 생활도서관과 연계 가능)

* 2000년 세계여성행진

여성운동의 확장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풀어낸다.

* 2000년 학생법정

정신대 할머니 문제를 가지고 준비 학생 워크샵